

‘함께이룬 군산농업, 함께여는 미래농업’

군산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1천여 군산시 농업인단체인 농촌지도자회원들과 생활개선회원들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군산시는 (사)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회장 김덕재)와 (사)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 두 단체가 손을 맞잡고 지난 1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함께이룬 군산농업, 함께여는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2023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단체 통합 5회째를 맞는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등 각 농업관련 기관장들과 농업인 단체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재 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한마음대회는 지난여름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 등 수해피해로 상심이 깊을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힘을 합쳐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되자”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경영 불안으로 농업인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



들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농업은 미래산업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와 (사)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는 매년 영농폐자재 수거사업, 어려운 이웃돕기 자원봉사, 농촌환경살리기 등에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왔으며, 군산발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농업, 농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 '2023 농촌인 한마음대회' 성료

1000여 군산시 농업인단체인 농촌지도자회원들과 생활개선회원들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자립도시군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쳤다.

군산시는 (사)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회장 김덕재)와 (사)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 두 단체가 손을 맞잡고 지난 1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함께이룬 군산농업, 함께여는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2023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단체 통합 5회째를 맞는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

산시의회 의장 등 각 농업관련 기관장들과 농업인 단체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덕재 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힘을 합쳐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되자"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농업은 미래산업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 송기문 기자 jbskm@naver.com



군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군산지역 농업 단체 (사)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회장 김덕재)와 (사)한국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가 미래 농업 선도를 통한 자립도시 군산 조성에 뜻을 모았다.

이들 단체회원 1천여명은 1일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함께 이룬 군산농업, 함께여는 미래농업’이란 주제로 ‘2023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성황리 마쳤다.

이날 대회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돼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와 (사)생활개선회군산시연합회는 매년 영농폐자재 수거사업, 어려운 이웃돕기 자원봉사, 농촌환경살리기, 장학사업 등 건강한 농촌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군산=정준모 기자